

## 파일 리스트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010.03.11	AIPS	아산기념강좌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 (Nuclear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Henry A.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의 강의 및 질의응답	한글/영어	43
2010.04.15	AIPS	Roundtable	The Political Economy of US-ROK OPCON Transfer	Moderator: Hahm Chaibong (AIPS)		영어	20
				Penelist: Bruce Bennett (RAND Corporation)	미국 해외 주둔 군인의 최근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 군대의 현대화와 방위비에 주목하였음. 더 강력한 한국 군대에 대한 미국의 바람에 주목, 짧아진 징병기간 등 한국군대의 최근 경향에 관심을 갖고면서 한국이 한미연합 책임분담에 있어 더욱 활발하게 "공정성"의 이슈를 고심할 것을 요청함.		
				Penelist: Choi Kang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한국의 자립적인 국가 방위 노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2020 한국 방위 개혁의 취약성 등 현재적 어려움에 대해 논함.		
				Penelist: Chun Chae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국가 방위를 위해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필요함을 논의함. 한국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감에 따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대중, 미국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대중이 필요함을 지적함.		
				Penelist: Koo Bon-Hak (Hallym Institut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왜 많은 한국인들이 OPCON(US-ROK Operational Control) 이양(transfer)의 연기를 요구하는가 이유를 설명함(한국의 북한 WMDs 대응 준비 부족, 이양 이후의 많은 논란이 있을 국내 정치 등). OPCON 이전의 경제적 측면을 자세히 논의함.		
				사회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발표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탈냉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는 현상을 중국측의 필요와 북한의 내부변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함.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010.04.29	AIPS	라운드테이블	북한-중국관계의 현주소	발표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의미 있는 대북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한글	16
				발표자: 이종석 (세종연구소)	현단계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분석함.		
				발표자: 한석희 (연세대학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패권국'이 될 것인지를 논의에 대해, 중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서 행동하더라도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2010.06.16	AIPS	Roundtable	Korea as an Emerging Donor	Moderator: Hahm Chaibong (AIPS)		영어	24
				Panelist: Hwang Won-Gyu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 직면한 펀딩, 조직, 직원(personnel), 원조 효과 등과 같은 도전들의 개요를 살핌.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개발 경험을 알려주기에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봄. 개발 원조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성을 제시함.		
				Penelist: Kim Eun Mee (Ewha Womans University)	개발 협력의 한국형 모델과 한국 개발 경험의 외국 국가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함.		
				Penelist: Neantro Saavedra-Rivano (University of Tsukuba)	원조국의 대중 역할 중요성의 증대와 수혜국의 자기주장과 같은 개발 원조의 현재적 경향을 설명함. 일본 개발 원조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ODA 프로그램을 정당화 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대중적 지지의 육성)-을 제시함.		
				Penelist: Barbara Stallings (Brown University)	원조 수혜국인 베트남의 사례를 제시한 뒤 한국 ODA 미래 방향을 위한 질문을 제기함. 아시아 원조국이 서방에 비해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방과 아시아 국가의 원조에 있어서 접근의 차이를 설명함. 그러면서 한국이 ODA 모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져봄으로써 어떻게 발전 원조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함.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010.06.30	AIPS	라운드테이블	국제 원자력 산업의 동향 과 한미 원자력 협력의 과제	사회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한글	16
				발표자: 장순흥 (KAIST)	원자력 현황과 동향에 대해 설명함. 인재양성을 통한 원자력 기술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에 있어서 원자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함.		
				발표자: 조병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협정 개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제반 상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협정 개정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발표자: 황주호 (경희대학교)	일본이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		
				발표자: 전진호 (광운대학교)	한국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 협상에 있어 관련 기관들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Post-Cheonan Regional Security				
			session I : Where Are We Now?	Chair: Hahm Chaibong (AIPS)			
				Speaker: Kim Taewoo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OK: 북한정부의 위기 처리방법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논쟁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진보적 비평가들"의 주장에 대해 논쟁하고 미국과의 강력한 연합정책과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지함.		
				Speaker: Ralph Cossa (Pacific Forum CSIS)	•US: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요약한 후, 미국-중국 관계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넘어선 냉담함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국을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로 보게끔 하며, 6자회담도 크게 의미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함.		
				Speaker: Paik Haksoon (The Sejong Institute)	•DPRK: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반응을 순서대로 정리. 북한 비핵화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헤게모니 라이벌이 대두되는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봄.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010.08.13	AIPS	Symposium		Speaker: Drew Thompson (The Nixon Center)	•PRC: 위기에 대처하는 중국 대응방식의 기초가 되는 정치, 외교, 국내적 상황 등 복잡한 사항들을 분석함. 중국과 미국 관계의 현재적 긴장이 또다른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면서, 중국 리더에게 위기로 몰아가는 현재 상황을 뒤바꾸고 긴장을 감소시키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을 요청함.	영어	53
				Chair: Scott Snyder (Center for U.S-Korea Policy, The Asia Foundation)			
			session II: Where Do We Go from Here?	Speaker: Lee Chung Min (Yonsei University)	•ROK: 천안함 사건의 위기가 한미연합과 북한중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강조함.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안보 조직을 증강시키는 등 한국의 안보 개혁을 요청함.		
				Speaker: Evans Revere (Albright Stonebridge Group)	•US: 한국의 안보 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해군 연합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육자회담은 열려있는 대화 통로로서 여전히 유용한 수단임을 지적함.		
				Speaker: Kevin Shepard (Pacific Forum CSIS)	•DPRK: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이 주도하여 꾸민 사건은 아니겠지만, 북한은 이번 위기로 이득을 얻었다고 봄. 현재의 상황-북한의 계승 정치와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한국의 북한 도발에 대한 오랜 관용에 주목하면서, 북한 도발은 북한이 경제 성장과 2012년까지 "강대한 번영 국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Speaker: Kim Heungkyu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MOFAT)	•PRC: 중국 정책 방향에 대한 다각적 코멘트		
				사회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발표자: 김형준 (명지대학교)	여론조사방식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잘못된 정치적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함. 이를 대신하여 완전국민경선제로 지칭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함.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010.09.16	AIPS	심포지엄	정당정치와 여론조사: 정당 의 후보공천과 정당 간 후 보단일화에 있어서 여론조 사 활용의 문제	발표자: 문우진 (아주대학교)	여론조사 공천방법이 정당 약화, 의원 독립성과 인물 중심투표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이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위임실패, 정치거래 의 시장거래화, 정치참여의 감소 및 불평등한 정치참 여 촉진, 책임정치 약화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음.	한글	24
				발표자: 박명호 (동국대학교)	여론조사의 사용을 무조건 지양하기보다는 그 균형점 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정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과 지지자 확보를 위해 여론조 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여론조사의 활용은 공직 후 보 선정 과정에서 개방성, 민주성, 대표성의 제고와 함께 제도화라는 목표를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에 맞 추어 현실적으로 추구한다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함.		
				토론자: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		
				토론자: 서성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		
				토론자: 허진재 (한국갤럽)	-		
				토론자: 홍영림 (조선일보)	-		
			G20 and Global Governance Reform				
			Session I: G20 and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20 and IMF Governance Reform"	Moderator: Bark Taeho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aker: Kenneth Dam (University of Chicago)	G20은 IMF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 기구의 대안체가 될 수 없으며 단지 포럼일 뿐임. G20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데 효과적 으로 기능해 왔고, 지금은 국제 경제 기구를 개혁하는 일을 위임받아야만 함. IMF 개혁의 주도권은 투표권 을 보유한 유럽에 달려있는데, 유럽이 의석을 내 놓아 야만이 신흥 경제국에 권력 할당이 가능함.		
				Discussant: Histake Masato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and Cambridge University)	Dam의 관점에 동의: G20은 단지 포럼이며, 효과적 조 치를 시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G20은 건 설적인 논의를 위한 장을 창조할 수 있음. G20에 국제 기구를 개혁하는 업무의 임명은 현명한 움직임.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Discussant: Huang Ying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G20 리더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IMF 개혁은 복잡한 일괄 프로그램이지만, G20은 부드럽고 설득력있는 권력을 가지고 IMF나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Discussant: Kim Joongi (Yonsei University)	G20은 IMF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 기구의 대안체가 될 수 없다는데 동의. 그러나 G20은 국제 금융 제도 개혁을 방해해온 정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IMF는 이슈의 공유와 의식에 있어 문제가 있고, 이는 신흥발전국가들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G20은 잠재적으로 IMF 통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Global Governance Issues at the Seoul Summit"	Luncheon Speaker: Ahn Ho-Young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G20의 발전과 한국에서의 G20의 중요성을 설명함. G20의 멤버국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국가들에게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Session II: The Rise of G20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G20: Stumbling, Probably Forward"	Moderator: Hahm Chaibong (AIPS)			
				Speaker: Stephen Krasner (Stanford University)	International regime으로서 G20을 분석. regime의 힘은 권력의 근본적인 분배, 구성원 이해의 상보성, 근본적인 믿음이 공유되는 정도 이 세 가지에 달려있음. G20은 첫번째 조건만을 충족하며, 두가지는 그렇지 않음. 그러나 G20을 대체할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G20은 "비틀거려도 아마도 앞으로 나아갈 것"임.		
				Discussant: Sohn Yul (Yonsei University)	G20의 대안 기관들은 G20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한 제한을 갖고 있음. IMF는 금융 위기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데 무능함을 보였음. G20은 네트워크로서 하나의 위기 단체가 아니라 건설적인 위원회임.		
				Discussant: Suzuki Motoshi (Kyoto University)	Krasner의 관점에 동의함. 각 국가가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는 어려운 시기에 G20이 어떻게 이질적인 멤버쉽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함. G20이 글로벌 통치의 성공적인 주창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와 중상주의 정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균형 성장, 안정 및 환경 보호를 실행할 수 있는 네오클래식한 자유 정책을 추구해야 함.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2010.10.11-12	AIPS	Conference		Discussant: Zhang Yanbing (Tsinghua University)	G20이 글로벌 통치의 효과적 메커니즘이 되는데에는 세 가지 장애물(주요 권력들의 태도, G20과 기존 국제 조직과의 관계, 아젠다 셋팅, 시기적절한 결정 등과 같은 효과적 전시 능력)에 직면해 있음. G20이 글로벌 경제 통치 조직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기구들을 통솔 하에 둘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함. G20은 포괄적인 고유의 아젠다를 설정해야 하며, 주요 구성원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함. G20은 2-3년 내에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고 주장.	영어	25
				Moderator: Mo Jongryn (Yonsei University)			
			Session III: National Perspectives on Global Governance: The Challenge of Parliamentary and Public Support "Congress and the Future of U.S. Engagement in World"	Speaker: David Brady (Hoover Institution)	세계 안보와 자유 무역 동의를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책을 비교함. 의회는 전쟁의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선택을 위해 대통령에게 결정을 넘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무역 정책의 문제는 실제 경제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구를 더욱 더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함. G20은 통화와 다른 경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리더들의 공개포럼의 장을 제공하여,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기존 국제 금융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G20은 IMF 보다 글로벌 공동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음. G20은 어떤 공식적인 제도적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국내 정치와 이익집단과의 어떠한 복잡한 관계도 피해야 함.		
				Discussant: Iida Keisuke (University of Tokyo)	일본의 G20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설명함. 일본은 G8에 소속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G20에서는 다섯번째 혹은 여섯번째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희소성의 가치를 상실함. 국내적 제약의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를 분석하고, 금융 정책이 안보 정책보다 제약이 더 강함(일본 국내 정치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임.		
				Discussant: Lim Wonhyu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Session IV: Alternative Governance Structure for Climate Control "G20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Moderator: Jung Ku Hyun (Senior Adviso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peaker: Young Soogil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Republic of Korea)	G20은 기후 통제 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포럼이 될 수 있음. G20은 기후 문제의 합의에 도달하여, 비구성원 국가에 예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Discussant: Chung Suh-Yong (Korea University)	UNFCCC는 기후 문제를 다루기에는 선진국이 신흥발전국과 겨루는 양상이어서 적합하지 않음. 2009년 코펜하겐 합의는 비법률적 합의와 정치적으로 관대한 장치만을 생산하여 IPCC가 추천하는 목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이러한 맥락에서, G20은 선진국과 신흥발전국가 양쪽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포럼일 수 있음. G20은 공식화 된 협상 틀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정상회담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움직일 수 있음.		
				Discussant: Thierry Soret (UNDP)	G20은 기후 변화와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 신속한 공동의 대응을 취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음. UN은 신흥발전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우선적이며, 대규모 배출국으로 하여금 신흥발전국가의 적응 과정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함.		
		Special Policy Speech I: "United Nations, the G20 and Better Global Governance"		Kim Won-soo (Special Advisor to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UN과 G20은 상호간에 서로를 보완하여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함.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발전 이슈는 UN과 G20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수 있으며, G20 비회원 국가를 대화에 불러들임으로써 관여하게 할 수 있음. 발전의 이슈는 새로운 수단을 창조하는 것 보다는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 구상을 하에서 논의되어야 함. G20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UN 국가들은 G20의 결정이 자국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음. 한국은 UNDP 발전 이슈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날짜	장소	회의형식	회의/강연 주제	사회자/발표자/토론자/강연자	내용	언어	쪽수
			Special Policy Speech II: "G20 and the Reform of the Globa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Yi Jong-Goo (Commissione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G20의 금융 규제 개혁 회담의 자세한 과정을 설명함 (은행 자본, 유동성 법칙, 금융제도(SIFI), 신용조사기 관).		
			Luncheon Speaker	Rhee Changyong (Secretary General,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		
2010.10.27	AIPS	라운드테이블	인터넷상의 여론형성: -인터넷과 숙의민주주의 -인터넷 괴담의 확산 -네티즌(집단지성과 군중 심리)	사회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한글	20
				발표자: 이준웅 (서울대학교)	인터넷의 구조적 특징을 상호가시성(intervisibility)에 서 나오는 소통의 쌍방향성으로 파악하고, 공개성, 평등 성,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인터넷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발표자: 염유식 (연세대학교)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으로 보고 상호가시 성, 공개성, 평등성에 기반한 소통의 조건을 제시함. 인터넷상 웹페이지들을 개인 블로그, 뉴스정보, 정부 기관 웹사이트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연결망을 분 석함으로써, 개인블로그가 인터넷상 여론형성에 있어 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임.		
				발표자: 황상민 (연세대학교)	인터넷 공간을 놀이터이자 배출구의 기능을 하고 있 다고 봄. "디지털 빠순이"가 지배하는 인터넷 공간은 성숙한 토론문화에 기반한 여론형성의 장이기보다 본 능과 재미가 지배하는 무분별한 놀이의 장으로 전략 할 위험성이 있음.		
				발표자: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소셜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의 모호한 경계는 사적 공 간과 공적 공간의 불분명한 구분으로 이어져, 이로 인 해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인터넷 실 명제를 통해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을 것을 제시함.		